



해외 업계 소식

중국 CDMA핵심칩 기술 확보

중국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통신 핵심 반도체 기술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중국은 필립스반도체로부터 CDMA 핵심칩과 관련기술, 연구개발인력 등 일체를 넘겨 받아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규격인 IS-95A/B 기반의 모뎀칩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세대 핵심칩을 개발하기로 했다.

필립스반도체 CDMA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보 루튼 부사장은 “중국 홀리커뮤니케이션그룹에 CDMA 핵심칩을 개발해온 70여명의 연구인력과 관련장비, 지적재산(IP)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매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의 계약이 완료되면 홀리커뮤니케이션그룹은 그동안 필립스반도체가 개발해온 IS-95A/B 모뎀칩에 대한 사업권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중인 CDMA 2000 1x 핵심기술을 넘겨받게 된다.

또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컴포넌트 기술과 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프로토콜 스택 등 소프트웨어 기술도 일괄적으로 이전받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립스반도체는 지난 99년 CDMA 모뎀칩을 개발중인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VLSI를 인수하면서 CDMA시장에 진입, 지난해 중국 및 국내 이동전화단말기업체에 시제품 등을 공급했으나 퀄컴의 시장지배력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신 필립스반도체는 CDMA용 고주파(RF) 칩 개발 및 외주설계(ASIC)서비스, 유럽형이동전화(GSM)방식의 3세대 모뎀칩 개발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IDC전망

세계 EMS시장 249억달러 성장

전사적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EMS) 시장이 지난해의 13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24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세계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 시장이 2005년까지 연평균 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IDC는 성능관리, 백업소프트웨어 등의 분야가 각각 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IDC는 특히 기업들의 스토리지 용량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스토리지 관리를 자동화·단순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쓰시타 저가의 박형TV

박형 TV의 저가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저가 제품을 대거 출시, 수요공약에 본격 나선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간 가격 경쟁이 뜨거워지고, 저가화 속도도 더욱 빨라져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마쓰시타는 저가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TV 2기종과 액정TV 2기종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마쓰시타가 이번에 내놓는 신제품의 가격은 PDP TV가 인치당 2만엔을 밑돌고, 액정TV도 인치당 1만엔을 밑돈다. 따라서 PDP TV의 경우 일부 업체나 일부 기종대에서 나타나고 있



해외 업계 소식

는 인치당 2만엔 정도의 가격이 주류가 될 전망이다. 액정TV도 인치당 1만엔 이하의 가격이 업체간 경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브라운관TV와 박형TV간 가격차가 크게 줄어 그 동안 가격 부담이 이유가 돼 저조했던 일반 수요도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DP TV와 브라운관 TV간 가격차는 2배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마쓰시타는 오는 10월 20일 방송위성(BS) 디지털튜너가 내장된 37인치형 PDP TV 신제품 '디지털타워'를 내놓는다. 권장소비자 가격을 78만엔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60만엔까지 내려가 히타치제작소가 조만간 출시할 동종 신제품(80만엔)을 가격 경쟁에서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시타는 또 10월 중 와이드 타입으로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를 내장하면서 판매 가격이 인치당 1만엔 정도인 11인치와 15인치형 액정TV를 출시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일본 PDP TV 시장이 오는 2003년에는 21만8000대로 올해의 3배 규모, 액정TV는 같은 기간 약 2배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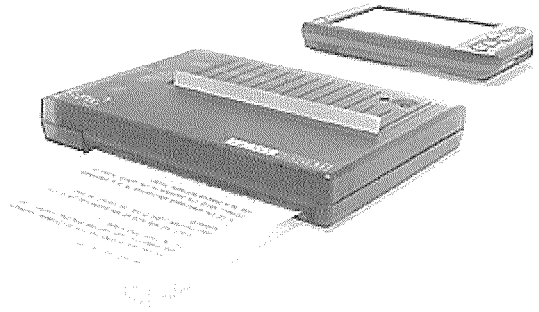
싸이픽스, 400dpi 고해상 휴대형 프린터

싸이픽스는 각각 개인휴대단말기(PDA)와 디지털카메라에 연결, 이동하면서도 출력할 수 있는 휴대형 프린터를 출시했다.

PDA용 A6는 무게가 8.75온스에 불과해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팜3.0 이상의 PDA뿐만 아니라 윈도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해상도는 400dpi이다.

디지털카메라용 '포켓컬러 200'은 무게가 10온



스이며 2×2.5인치 크기로 사진을 출력한다.

일본 KDDI 내년 4월부터 cdma2000 1x 서비스

일본 KDDI는 올해 말부터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cdma2000 1x)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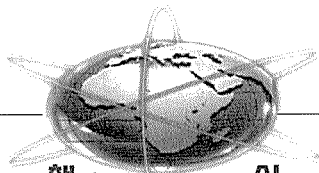
이 회사는 내년 4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cdma2000 1x를 이용한 144Kbps 속도의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자바(Java) 서비스인 '이지플러스(ezplus)'로 이용하고 있는 사양을 업그레이드해 서버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기술인 '지피에스원(gpsOne)'을 바탕으로 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14.4Kbps로 제공하고 있는 이지웹(EZweb) 서비스는 64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콘텐츠 기술방식을 'WAP 2.0'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i모드의 웹사이트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로는 고속 데이터통신을 실현하는 cdma2000 1x의 장점을 살려 스트리밍 동영상 전달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KDDI는 또 내년 가을께 200대 주파수대역을



해외 업계 소식

사용한 서비스나 데이터 통신전용 'cdma2000 1x EV(HDR)' 를 도입한다.

베리사인, 전자인증시스템 보급 경쟁 “영향력 커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증시스템 보급 경쟁에 뛰어들면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베리사인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이다.

전자인증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번호나 주소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 단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서 온라인 예약이나 전자상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베리사인이 보유한 인터넷 인증 및 보안 기술은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예약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의 이스라엘 헤르난데스 애널리스트는 “머지 않아 사람들은 이 회사가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기반 기술 공급 업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리사인은 지난 7월 MS의 온라인 인증 시스템인 ‘패스포트’ 시스템 개발 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9월 26일에는 선의 ‘자유동맹(Liberty Alliance)’ 프로젝트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MS의 패스포트 서비스는 웹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닷넷(.Net) 전략의 일환으로, MS는 이를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 연동시킬 방침이다. MS는 이를 위해 베리사인의 서버 디지털 인증기술과 개인 신용관리 기술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의 자유동맹 프로젝트에는 बैं크오브아메리카 · 시스코시스템스 · 제너럴모터스(GM) · 이베

이 · 노키아 · NTT도코모 · 소니 · 리얼네트웍스 등 30여 협력업체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리사인의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마쓰시타 저가 청색레이저 소자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니치아화학공업 등 타사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 저가의 청색(靑色)레이저 소자를 개발했다

질화갈륨을 재료로 청색광을 직접 만드는 기존 소자와 달리 적색레이저를 특수결정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신소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특히 마쓰시타가 조기양산에 나설 계획이어서 차세대 광디스크에 불가결한 청색레이저 소자를 둘러싼 세력판도에 큰 변화가 일 가능성도 있다.

마쓰시타가 이번에 개발한 청색레이저 소자는 리튬니오브 등으로 형성할 수 있는 비선형(非線形)광학결정을 매개로 적색레이저의 파장을 절반인 410나노미터의 청색레이저로 변환시킨다.

비선형광학결정은 청색레이저의 직접 발광이 어려운 점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마쓰시타는 에너지 변환효율 등을 개선해 이번 개발에 성공했다.

이 소자는 또 양산기술이 확립돼 있는 적색레이저를 바탕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청색레이저 소자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색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는 마쓰시타는 신소자를 연내 개당 2000~3000엔 가격으로 샘플을 출하하고 내년에는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